

발달단계 구분에 따른 조손가족 손자녀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 영향 요인

이 윤 화(Lee, Yon-hwa)*

(E-mail : lyhsws@mokwon.ac.kr)

논문접수일 : 2010년 10월 1일

논문심사일 : 2010년 10월 22일

게재확정일 : 2010년 11월 22일

* 학위취득대학 : 연세대학교

현직 :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발달단계 구분에 따른 조손가족 손자녀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 영향 요인

<국문요약>

본 연구는 조손가족 손자녀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조손가족 손자녀의 발달단계 구분에 따라 그 영향요인의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파악함으로써 조손가족 손자녀를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조손가족 조부모와 손자녀 각 2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손가족 손자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손자녀의 자아존중감, 성인역 부담감, 사회적 낙인감, 형제수, 조손가족 기간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둘째, 조손가족 손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사회적 낙인감, 성인역할부담감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조손가족 손자녀의 발달단계를 구분하여 영향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동기에 해당되는 조손가족 손자녀의 우울에는 성인역 부담감, 사회적 낙인감이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으나 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낙인감이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어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도 아동에게는 자아존중감과 성인역 부담감이, 청소년에게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낙인감이 주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어 발달단계에 따른 영향요인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손가족 손자녀를 위한 지원서비스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조손가족, 우울, 학교생활적응, 발달단계, 사회적낙인감

I. 서 론

2005년 인구가구 총 조사를 통해 집계한 우리나라의 조손가구는 전체가구의 0.36%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동안 65.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여성가족부 2007). 이는 90년대 후반 이후 이혼 및 빈곤에 기인한 가족해체가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손가족은 부모세대의 부재로 인해 조부모가 미성년인 손자녀의 양육을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가족을 말하는데, 다양한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는 위기가정으로 분류된다(이혜연 외 2009). 또한 조손가족은 가족구조나 기능상 결손의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조부모와 손자녀세대간의 세대 간 격차로 인한 갈등, 조부모의 발달과업과 맞지 않는 양육부담감, 가족해체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정서적인 어려움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중복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실태조사에서 조손가족의 소득이 월평균 70만원이고, 77.5%가 정부보조금을 받으며, 조부모의 연령은 60-70세로 고령화 되어있고, 학력수준은 낮으며, 조부모의 절반이상이 만성적 질병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한 가족으로 분류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여성가족부 2007). 이와 같이 조손가족이 이중삼중의 위기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조손가족은 이에 따른 충분한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 지원 역시 미약한 수준이다(조홍식 외 2010). 현재 조손가족에 대한 정부지원들은 정확한 현황파악에 근거해서 지원 전략이 장기적으로 계획되고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부부처에서 각기 단편적 형태의 서비스들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손가족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조손가족의 어려움과 관계되는 요인들

에 대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손가족이 경험하는 복합적인 문제 중 특히 조손가족 손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는 아동기의 심리사회적 적응이 성인기까지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조손가족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논의 초점이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김유미 외 2008; 김혜선 2009; 송유미·이윤희 2009; 옥경희 2005; 이선형 외 2009; 최해경 2006a; 최혜지 2006). 이들 연구들은 주로 조부모의 양육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조손가족 조부모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 조손가족 손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렵고, 조부모와 사회적 환경 특성에 관련된 변수를 함께 고려한 연구는 매우 적다. 따라서 조손가족 손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다차원적 변수들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심리사회적 적응을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선행연구들에서 조손가족 손자녀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적응의 문제로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을 다루어왔기 때문이다(Grych and Finchman 1992; Hethering et. al. 1982). 한편 주스터등(Jooste et. al. 2008)은 조손가족 손자녀의 발달단계가 손자녀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는데 아직 국내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인간의 욕구는 연령이나 발달단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손가족 손자녀의 경우에도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차이를 고려하여 이들의 적응 영향요인의 차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손가족 손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부모 및 사회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하며 또한 조손가족 손자녀의 발달단계를 아동기와 청소년기로 구분하여 그 영향 요인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조손가족 지원서비스 마련에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II. 선행연구고찰

1. 조손가족 손자녀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

조손가족 손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논의에서 주로 손자녀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이 주요 관심사가 되어왔다. 이는 일반적으로 조손가족의 아동들에게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가 부적응의 문제로 나타나고, 조손가족 손자녀들 중 상당수가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Grych and Finchman 1992; Hethering et. al. 1982).

아동의 우울은 오랫동안 아동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고, 보다 심각한 부적응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영역이다. 우울이란 인간이 성장하면서 건강한 사람들도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정서이며, 지각, 판단, 기억, 인지, 사고, 태도 등에서부터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음의 부정적인 상태를 말한다(Beck 1976). 그런데, 아동의 경우 우울증상이 심각해지면 학업문제, 교우관계 등 사회화 과정에서 부적응하게 되고 정신과 신체의 바람직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최영희 외 2002). 더 나아가 아동기의 우울은 성인기의 만성적 우울증 유발의 위험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실업이나 빈곤과 같은 성인기의 사회경제적 지위와도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Aneshensel and Sucoff 1996; Aronen and Soininen 2000). 그런데 아동기 우울은 잘 발견되지 않으며, 다른 문제와 결합되어 심화된 문제로 확대된 후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Bhatia and Bhatia 2007; 김연희·김선숙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손가족 손자녀의 심

발달단계 구분에 따른 조손가족 손자녀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 영향 요인 131

리적 적응을 손자녀의 우울수준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조손가족 손자녀의 적응에 있어 자주 고려되는 변수가 학교 생활인데, 아동·청소년기에 학교가 이들의 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Sampson and Laub 1996). 또한 학교는 가정에서 사회로 청소년의 생활범위가 확대되는 곳이며 사회관계의 장일뿐 아니라 학교에서의 성취가 이후의 사회적응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김혜선 2004a). 특히 아동·청소년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조손가족 손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있어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우울과 학교생활 적응 영향 요인

조손가족 손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렵지만, 일반 아동·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맥레오드와 쉐나한(Mcleod and Shanahan 1993)은 빈곤가정 청소년들의 적응을 살펴본 연구에서 이들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사회적응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우울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복합적인데 국내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자존감 등의 개인적 특성, 생활수준, 가족관계, 부모의 양육행동 등의 부모 및 가정환경 특성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김혜성 외 2006; 류경희 2003; 청소년위원회 2005).

국내 조손가족 손자녀의 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혜선(2004a)은 조손가족 손자녀의 문제행동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에서 아동의 성, 연령 등의 인구학적 변인과 조부모의 양육태도 및 조부모의 학교지원 등이 중요한 영향변수라고 제시하였고, 김혜선의 또 다른 연구(2004b)에서는 조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조손가족

손자녀의 우울과 공격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최해경의 연구(2006a)에 따르면 조손가족 손자녀 중 62%가 양호한 학교 적응유연성을 보였으며, 생활수준과 연령, 가족관계, 학교환경이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김진숙(2009)은 최근 조손가족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생활세계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조손가족 청소년들이 사회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스스로 낙인을 형성하고 이들의 삶에 큰 장애물로 지적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조손가족 손자녀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요인을 개인·조부모·가족·사회 등의 다차원적인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1) 손자녀의 개인적 특성

조손가족 손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 보고되고 있는데,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이 지각한 자신의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해 스스로가 판단하는 태도로 개인이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나 타인에게 존경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사회적 행동과 역할을 결정하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며 사회·심리적 적응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나라 청소년 위원회에서(2005) 낮은 자존감이 청소년 적응에 대표적인 위험요인이라고 제시하였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면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임수경·이형실 2007),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김애경 2001). 조손가족 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감 수준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고(박옥임·김정숙 2006; 신은정 2004; 이창식 박미자 2009), 송유미와 이윤형(2009)의 연구에서는 조손가족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유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의 완화에 매개하는 변수라고 보고하였다.

조손가족 손자녀의 적응과 관련하여 거론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성인역할 부담감이다. 성인역할 부담감이란 부모의 실질적, 정서적 역할 부재 상황에서 아동이 자신의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성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험하는 정서적 과부하를 의미한다(박현선 외 2006). 조손가족 손자녀는 조부모가 연로하거나 거동이 불편하면 손자녀가 오히려 조부모를 부양하거나 가사 일을 전담하는 등 조부모를 직접·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성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 많이 처하게 된다. 이 때 아동은 조기성숙의 압력을 경험하게 되고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성인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이상균·박현선 2000). 이러한 상황에서 조손가족 손자녀의 책임감이 강화될 수도 있지만, 과도한 성인역할 부담감은 아동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Meredith 1992).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역할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그 시기에 필요한 친구관계의 형성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적응에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실제, 조손가족은 아니지만,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의 성인역부담은 우울성향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균·박현선 2000).

이 외에 아동의 개인적 특성 중 성별과 연령이 우울과 학교생활 적응에 관련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성별과 연령이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김혜성 외 2006), 여아인 경우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울의 경우에도 여아가 남아에 비해 우울감과 정적인 관련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오승환 2001; Emery 1988). 조손가족 손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최해경 2006b), 김혜선(2004a)도 조손가족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에서 아동의 성과, 연령이 중요한 영향변수라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조손가족 손자녀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요인으로 아동의 성, 연령, 자아존중감, 성인

역부담감을 선정하여 그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조부모특성

조손가족의 경우 손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주 양육을 책임지는 조부모일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신체적 건강상태가 손자녀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양육스트레스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부모역할로서의 스트레스를 의미하는데(Abidin 1992), 일반적으로 조손가족은 가족구조의 결함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해 주 양육자인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증가될 위험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손자녀의 양육역할을 떠맡은 조손가족 조부모의 경우가 과정에서의 갑작스런 역할 변화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며, 생활주기에서 벗어난, 시간에 어긋난 역할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하게 될 것이고, 이는 정신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Landry-Meyer and Newman 2004; Sands and Goldberg-Glenn 2000).

이처럼 누적된 조부모의 스트레스는 아동의 안녕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Minkler et. al. 1992). 일반적으로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주 양육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아동의 낮은 자존감, 불안, 우울, 공격성, 또래관계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아동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노충래 외 2008). 김혜선(2004b)의 연구에서는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손자녀의 우울과 공격성 등의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손자녀의 우울 간에 관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손가족 조부모 중 절반이상이 만성적 질병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손가족 조부모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물론 조부모의 만성적인 건강문제가 노화와 관련 있는 문제일 수 있

으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손자녀를 양육하는 스트레스가 건강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도 하다(Burton 1992; Haglund 2000). 또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신체적 기능이 손자녀의 삶의 질을 위협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는데(Whitley et. al. 2001), 이는 조부모의 신체적 건강수준이 나빠지면, 이는 곧 손자녀의 우울 또는 손자녀의 적절한 사회활동인 학교생활적응에도 제약을 초래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외에 조부모의 특성 중 조부모의 연령이 손자녀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조손가족 조부모들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김미혜·김혜선 2004), 이는 손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조부모의 배우자 유무를 영향요인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데 이는 일반적으로 한 부모 가족에게서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나며, 자녀적응 상 부적응이 초래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전수정 2003)에 근거한 것이다. 조손가족 내 조부모에게 배우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양육부담을 분담하고, 사회적 지지가 가능한 자원의 양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손자녀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3) 가족특성

조손가족 손자녀의 우울과 학교생활 적응에 전체 가족으로서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조손가족 손자녀의 형제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동변상련의 동지로 각각에게 긍정적인 지지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손가족 조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선행 연구에서는 손자녀 수가 많을수록 조부모의 스트레스는 더 커진다고 보고되었다(권인수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 그 영향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가족의 소득과 관련해서는 국외 연구에서는 빈곤이나 가족소득 수준이 아동기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나,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나 생활수준 같은 경제적 변

수가 이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희미(2005)의 연구에서는 빈곤 관련 스트레스가 아동의 우울·불안 등의 내재화 행동문제를 높인다고 보고하여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었고, 박현선(2008)의 연구에서도 빈곤한 가족의 아동이 빈곤하지 않은 가족의 아동에 비해 우울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가족의 생활수준이 학교생활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김혜성 외 2006; 류경희 2003), 가족의 소득이 아동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판단된다.

조손가족으로 지낸 기간도 조손가족 손자녀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에머리(Emery 1988)와 칼터 등(Kalter et. al. 1988)의 연구에서는 가족결손의 발생 직후가 자녀의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헤더링톤 등(Hetherington et. al. 1982)의 이혼가족 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혼의 부정적 영향이 가족결손 2년 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손가족의 부모세대와의 접촉이 조손가족 손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몇몇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접촉이 빈번할수록 손자녀는 우울과 불안을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하였다(성지혜 2001; 정효미 2006). 반면 부모와의 접촉 빈도가 자녀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제시되었다(Hetherington et. al. 198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손가족 손자녀의 형제수, 조손가족의 소득, 조손가족으로 지낸 기간, 부모세대와의 접촉여부를 가족특성과 관련된 요인으로 선정하여 조손가족 손자녀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4) 사회적 특성

아동과 가족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어 왔다. 사회적지지는 ‘가족, 친구, 사회적 집단에게서 받는 정서적, 정신적 도움’으로 정의되며(Kelley et. al. 2000), 적응적인 대처행동을 향상시켜 스트레스에 보호역할을 하거나, 스트레스 유

무와는 무관하게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Russell and Cutrona 1991). 보통 지지적인 사회관계망은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Sands and Goldberg-Glen 2000), 머실과 아마드(Musil and Ahmad 2002)는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회적지지가 우울의 경감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사회적지지가 적을수록 조손가족 청소년의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박미자·이창식 2008). 환경적 특성중 하나로 사회적 지지와 지역사회분위기 등이 빈곤지역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정익중 외 2000). 따라서 조손가족 손자녀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에 사회적지지가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조손가족과 관련된 연구에서 사회적 낙인감을 자주 다루지는 않았으나,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손가족과 손자녀에 대한 지원서비스 대부분이 선별주의적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낙인감이 이들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빈곤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생들 중 약 16%가 도움을 받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느끼고 있었고,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는 학생이 12.7%에 달하는 등 빈곤과 관련된 낙인인식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상곤·정연정 2008).

사회적 낙인의 개념은 고정관념이나 편견과 혼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낙인이란 특정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에 감정적 반응을 더한 편견과 차별행동까지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다(Penn and Martin 1998). 낙인은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행위,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속성으로 사회적 정체성을 손상시키고 그 개인을 자기 수용과 사회적 수용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이인옥·이은옥 2006). 특히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각된 사회적 낙인은 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며(Link et. al. 2001), 대인관계, 사회적응, 취업, 비도덕성,

심리적 디스트레스등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Corrigan et. al. 2003).

우리나라에서 인지된 사회적 낙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신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고, 최근 빈곤아동의 사회적 낙인감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정연정·김상곤 2009). 김진숙(2009)의 연구에 따르면 조손가족 청소년들이 사회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스스로 낙인을 형성하고 이들의 삶에 큰 장애물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사회적 낙인이 조손가족 손자녀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조손가족 손자녀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다차원적인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조손가족 손자녀의 발달단계상 아동·청소년기 구분에 따른 영향요인의 차이를 파악하여 조손가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조손가족 손자녀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조손가족 손자녀의 발달단계상 아동·청소년기 구분에 따른 우울과 학교생활적응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가?

2. 주요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① 조손가족 손자녀의 우울

본 연구에서 조손가족 손자녀의 우울은 미국정신보건연구원에서 일반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 증후군의 역학적 연구를 위해 개발한 도구(CES-D: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for depression scale)를 조맹제와 김계희(1993)가 번안하여 한국내의 타당도 검증을 한 것으로 사용 하였다. 본 척도는 우울한 기분, 무가치감, 절망감, 의욕상실, 수면장애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총 20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척도로, 각 문항별 점수가 0-3점이고, 총점의 범위는 0-6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하며 16점은 경도 이상의 우울 상태, 23점은 우울장애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신뢰도 검증결과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07$ 로 나타났다.

② 조손가족 손자녀의 학교생활적응

본 연구에서 조손가족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은 박현선(1998), 유윤희(1994), 이은숙(2001)등이 사용한 척도를 학교에 대한 애착, 학업성취도, 학교규범 수행, 담임과의 관계 등을 포함한 총 14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14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단일요인으로 묶였으며, 주요문항의 내용은 '성적이 반에서 좋은 편이다', '나는 학교에 있는 동안 마음이 편안하다', '학교생활이 즐겁다'. '담임선생님이 좋다', '학교의 규범을 준수한다' 등이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총 14점에서 56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1$ 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①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하며 유능한 존재로 믿고 있는지의 정도'를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로젠버그(Rosenberg, 1965)의 Self-Esteem Scal을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청소년용으로 5개의 긍정적 문항과 5개의 부정적 문항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되며 총 10점에서 40점의 범위이고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alpha = .839$ 로 나타났다.

② 성인역 부담감

본 연구에서 성인역 부담감은 '아동이 자신의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성인역할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정서적 불편함의 정도'를 의미한다. 성인역 부담감 척도는 박현선 외(2006)가 이상균과 박현선(2000)이 소년소녀가정 청소년에게 활용하였던 10문항의 척도를 4문항으로 수정하여 활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부담', '부모님 대신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부담', '부모님 대신 집안일을 해야 하는 부담', '혼자 일을 결정해야하는 부담'의 4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측정한 내용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50$ 이었다.

③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스스로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의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내용을 신숙재(1997)가 20문항으로 조정한 것을 김혜선(2004b)이 조부모에 맞게 다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구성되었으며 20점에서 100점의 범위를 갖는다. 점수가 높을수록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alpha = .884$ 로 나타났다.

④ 조부모의 신체건강

조부모의 신체건강은 '조부모가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를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최해경(2006b)이 사용한 일상생활 활동능력 척도(Activities of Daily Living : ADL) 척도를 사용하였다. 목욕하기, 옷갈아 입기, 식사하기, 일어났다 앉기, 걷기, 화장실 사용하기, 쇼핑, 전화걸기,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가벼운 집안일하기 등 총 10가지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너무 불편해서 혼자 할 수 없다'는 1점에서 '전혀 불편이 없다' 4점까지고 총점의 범위는 10점에서 4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고 일상생활활동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2$ 로 분석되었다.

⑤ 사회적지지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손가족이 가족, 친구, 이웃, 지역사회로부터 받는 정서적, 도구적 도움의 정도'를 의미한다. 조손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이현주(2007)가 수정하여 활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사회적지지 원천을 가족 및 친척, 친구 및 이웃, 동사무소 및 사회복지관으로 구분하고,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는 내용에 따라 정서적, 도구적지지 영역으로 나누어 총 1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음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alpha = .872$ 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⑥ 사회적낙인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낙인감을 '조손가족 손자녀가 사회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사회적낙인감은

링크 등(Link et. al. 1989)이 개발한 지각된 낙인척도의 일부문항을 화상장애인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한 최미영(2003)의 척도를 조손가족 아동의 특성에 맞도록 5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사람들은 내가 조부모와 살고 있어도 다른 친구들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내가 조부모와 함께 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실패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조부모와 생활하는 나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꺼린다’, ‘사람들은 내가 조부모와 생활한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들과 차별한다’등의 5문항이며 요인분석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총 0점에서 20점까지의 범위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된 낙인의 정도가 더 큰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1$ 로 나타났다.

3.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동거가족 내에 부모세대 없이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대전지역에 거주 중인 조부모와 손자녀이다. 지역사회에서 조손가족에 대해 개별적으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각 행정동의 주민센터에 등록된 조손가족과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대전 지역 5개구에서 각 구별 50가족, 총 250가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구별 5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도움을 통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즉, 조사원이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조부모 1인과 손자녀 1인이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질문지를 읽는데 어려움이 있는 조부모의 경우 조사원이 질문지를 읽어주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은 2008년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간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설문작성에 동의한 사람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었다. 초

발달단계 구분에 따른 조손가족 손자녀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 영향 요인 143

등학생의 경우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초등 4학년 이상의 손자녀에게만 조사를 진행하였다. 각각 201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4.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호화 과정과 오류검토 작업을 거친 후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통해 연구에 활용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변수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조손가족 손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를 평균비교분석으로 검증하였으며, 조손가족 손자녀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의 특성

1) 조손가족 손자녀와 조부모의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조손가족으로 생활하고 있는 손자녀와 조부모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다. 조사대상 조손가족 손자녀의 성별 분포는 남·녀 반반 정도였으나 남자의 경우가 52.7%로 약간 많았다. 조사대상 손자녀의 연령은 만 10세에서 12세, 즉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가 39.8%였고, 청소년기인 만 13세에서 만 18세에 해당되는 경우가 약 60%정도였다.

조사에 응한 조부모의 성별은 여성이 77.6%로 남성의 경우보다 세

배이상 많았다. 조부모의 연령은 평균 약 69세였으며 만61세에서 만 70세에 해당되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이상인 55.2%로 많았고, 만 71세에서 만80세에 해당되는 경우가 28.9%였다. 만 60세 이하의 상대적으로 젊은 조부모는 10.4%정도였고, 만 80세 이상의 고령인 조부모도 5.5%정도를 차지했다. 조부모의 학력은 초등 줄이 약 41%정도였으며, 학교에 다니지 않은 경우가 29.4%로 초등졸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가 약 70%정도였다. 또한 배우자 없이 홀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 54.2%에 해당되었다.

<표 1> 조사대상 손자녀와 조부모의 특성

(N=201)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손자녀 성별	남	106	52.7
	여	95	47.3
손자녀 연령	만10세 - 만12세	80	39.8
	만13 - 만15세	70	34.8
	만16 - 만18세	51	23.9
조부모 성별	남	45	22.4
	여	156	77.6
조부모 연령	만60세 이하	21	10.4
	만61세 - 만70세 이하	111	55.2
	만71세 - 만80세 이하	58	28.9
	만80세 이상	11	5.5
조부모 학력	무학	59	29.4
	초등졸	83	41.3
	중졸이상	59	29.4
배우자유무	배우자 있음	92	45.8
	배우자 없음	109	54.2
계		201	100.0

2) 가구특성

조사대상 조손가족 가구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다. 조사대상 조손가족손자녀의 경우 1명 이상의 형제가 있는 경우가 65.7% 정도였고 형제가 없이 외동인 경우는 전체의 약 1/3 정도였다. 친조부모가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84.1%로 대부분 이었고, 외조부모인 경우는 15.9% 정도였다. 조손가족이 된 이유로 약 절반정도가 부모세대의 이혼으로 조부모가 양육을 맡게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세대가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경우는 40.8%, 그 외 미혼모이거나 부모의 질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조손가족이 된 경우는 10% 미만이었다.

조손가족으로 살아온 기간을 파악한 결과 5년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2/3 정도였고, 5년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가 약 35% 정도였다. 조손가족으로 생활하지만 부모가 사망한 경우인 33가구(16.4%)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의 경우 부모세대와의 접촉이 가능할 것이므로 부모세대와의 접촉정도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부모와 항상 접촉하는 경우는 21.4%, 가끔 만나는 경우는 13.4%였으나 부모가 사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왕래가 없는 경우가 약 절반 정도였다. 조사대상 조손가족의 월평균소득액은 약 67만원 정도였으며, 71만원 이상의 월소득이 있는 경우는 32.3%에 불과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사대상을 저소득가족만을 조사대상으로 제한하지는 않았으나 표집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수급자이거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서비스 대상이 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것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조손가족의 가구특성

(N = 201)

구 분		빈도(명)	백분율(%)
형제수	외동	69	34.3
	1명	91	45.3
	2명이상	41	20.4
조부모와의 관계	친조부모	169	84.1
	외조부모	32	15.9
조손가족 이유	부모세대 이혼	101	50.2
	부모세대 사망 또는 행방불명	82	40.8
	기타	18	9.0
조손가족 기간	5년이하	71	35.3
	5년초과 - 10년이하	75	37.3
	10년초과	55	27.4
부모와의 접촉정도	접촉안됨(사망포함)	131	65.1
	가끔 접촉	27	13.4
	항상 접촉	43	21.4
월평균소득	50만원이하	72	35.3
	51-70만원이하	64	31.8
	71만원이상	65	32.3
전 체		201	100.0

2. 조손가족 손자녀의 발달단계 구분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특성은 <표 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다. <표 3>에서는 조손가족 손자녀의 발달단계를 아동기에 해당되는 초등학생과 청소년기로 분류될 수 있는 중·고등학생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 간에 주요변수들의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분석하였다. 집단을 구분한 결과 초등학생으로 아동기에 해당되는 사례

발달단계 구분에 따른 조손가족 손자녀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 영향 요인 147

가 81명이었고, 중·고등학생으로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사례가 121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상정된 조손가족손자녀의 우울정도는 평균 20.33정도로 나타났고, 16점이 경도이상의 우울을 판정하는 절단점임을 고려할 때 우울수준이 낮지 않은 것으로 유추된다. 손자녀의 발달단계를 구분하여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또 하나의 종속변인인 학교생활적응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조손가족 손자녀의 학교생활적응 정도는 평균 33.8점 정도로 나타났으며 원척도가 14점에서 56점의 응답범주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 점수가 중앙값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학교생활적응 수준은 중간정도로 평가된다. 학교생활적응 정도 역시 손자녀의 발달단계를 구분하여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에서 주요 독립변수로 상정된 손자녀의 자아존중감, 손자녀의 성인역부담감,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조부모의 신체건강정도, 조손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정도, 손자녀가 인지한 사회적 낙인감의 정도 등의 변수가 가지는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조사대상 손자녀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평균 28.48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손자녀의 발달단계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손자녀가 조손가족내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성인역할 부담감의 정도는 평균 9점으로 나타났는데 중앙값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그런데, 조손가족 손자녀가 인지하는 성인역할 부담감의 정도는 발달 단계를 구분하였을 때 차이를 보였다. 즉, 청소년이 느끼는 성인역할 부담감이 아동이 인지하는 성인역할 부담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손가족 조부모가 인지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은 평균 56.25로 보통 정도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대상 조

손가족 조부모의 신체건강정도는 평균 16.99로 중앙값 25점을 기준으로 볼 때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조손가족 손자녀의 발달단계 구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조손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정도는 평균 54.09점으로 사회적지지 수준은 대체로 높은 편으로 파악되었고, 조손가족 손자녀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사회적 낙인감의 수준은 평균 14.6점으로 0점에서 20점까지의 응답범주를 고려하면 높은 수준의 사회적 낙인감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수준과 사회적 낙인감 수준은 손자녀의 발달단계를 아동기와 청소년기로 구분하여 분석했을 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주요변수들의 특성

(아동: N = 81, 청소년: N = 121)

구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손자녀의 우울	아동	19.18	7.92	199/165.35	-1.713
	청소년	21.09	7.66		
손자녀의 학교적응	아동	37.84	5.83	199/184.41	1.670
	청소년	36.31	6.69		
손자녀의 자존감	아동	28.48	4.71	199/179.88	-.018
	청소년	28.49	5.17		
손자녀의 성인역 부담감	아동	8.38	2.79	199/151.87	-2.802**
	청소년	9.41	2.41		
조부모 양육스트 레스	아동	56.53	7.80	199/186.65	.368
	청소년	56.07	9.17		
조부모 건강상태	아동	16.68	5.41	199/172.56	.981
	청소년	16.69	5.56		
사회적 지지	아동	55.78	12.87	199/171.02	.134
	청소년	52.96	13.05		
사회적낙 인감	아동	15.08	5.54	199/179.09	.352
	청소년	14.29	6.04		

종합하면, 조사대상 조손가족 손자녀는 경도이상의 우울수준을 보이며, 보통 수준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있다. 또한 보통 정도의 자

존감과 보통보다 약간 낮은 성인역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들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조손가족 조부모의 경우 보통정도의 양육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 조손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정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수준의 사회적 낙인감을 인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손자녀의 발달단계를 구분하여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인역 부담감에서만 차이가 나타나 청소년이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인역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조손가족손자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행연구를 토대로 조손가족손자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요인들을 선정하여 그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고, 또한 조손가족 손자녀의 발달단계를 아동과 청소년기로 구분하였을 때 영향요인에 차이가 나타나는 가를 파악하기 위해 세 차례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중 손자녀의 성별, 조부모의 배우자 유무, 부모세대와의 접촉 여부는 질적변수이므로 가변수화(dummy variable)하여 양적변수로 변환하여 투입하였다(성별 1=남, 0=여, 배우자유무 1=있음, 0=없음, 부모세대와의 접촉, 1=접촉있음, 0=접촉없음). 분석에 앞서 각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을 검토한 결과 각 변수들 간의 VIF 값이 3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체 조사대상 조손가족손자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는 <표 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설명력은 43.6%로 나타났다. 총 14개의 독립변인을 투입하여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한 결과 손자녀 개인변인 중 자아존중감($\beta=-.259$)과 성인역 부담감($\beta=.222$)이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고, 가족변인 중 형제수($\beta=-.132$)와 조손가족

기간($\beta=.115$)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변인 중 사회적 낙인감($\beta=.296$)이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손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성인역 부담감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아지며, 형제수가 적을수록 조손가족기간이 길어질수록 조손가족 손자녀의 우울의 수준이 높아지고, 조손가족 손자녀가 인지하는 사회적 낙인감이 커질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표 4> 손자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전체		아동		청소년	
		β	t	β	t	β	t
손자녀 개인 변인	성별 ¹	-.089	-1.568	-.045	-.485	-.106	-1.387
	연령	.028	.469	-.039	-.433	-.035	-.464
	자아 존중감	-.259	-3.654***	-.208	-1.583	-.335	-3.543**
	성인역 부담감	.222	3.095**	.267	2.453*	.187	1.905
조부모 변인	연령	-.092	-1.581	-.057	-.651	-.122	-1.460
	배우자 유무 ²	-.012	-.202	-.122	-1.293	.096	1.156
	양육 스트레스	.104	1.789	.068	.710	.090	1.161
	건강상태	.078	1.391	.080	.873	.078	1.024
가족 변인	형제수	-.132	-2.275*	-.163	-1.687	-.124	-1.597
	소득	.073	1.167	.198	1.123	-.074	-.819
	조손가족 기간	.115	.189*	.341	3.937***	.042	.467
	부모세대 접촉여부 ³	-.050	-.907	.042	.458	-.129	-1.700
사회적 변인	사회적 지지	.075	1.320	.085	.990	.102	1.323
	사회적 낙인감	.296	3.717***	.327	2.428*	.264	2.460*
상 수		1.956*		1.574*		2.731**	
F		11.978***		6.741***		6.570***	
adjusted R ²		.436		.504		.396	

1,2,3= 더미변수, * $p<.05$, ** $p<.01$, *** $p<.001$

발달단계 구분에 따른 조손가족 손자녀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 영향 요인 151

다음으로 손자녀의 발달단계 구분에 따른 영향요인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아동기인 경우 손자녀의 자존감은 손자녀의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성인역할 부담감($\beta=.267$), 조손가족 기간($\beta=.341$), 사회적 낙인감($\beta=.327$)이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청소년기인 경우에는 성인역 부담감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고, 자존감 수준($\beta=-.335$)과 사회적 낙인감의 수준($\beta=.264$)만이 이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인역할 부담감의 수준은 조손가족 손자녀의 발달단계를 구분하여 평균을 비교해 보았을 때 청소년인 조손가족 손자녀가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오히려 이들의 우울수준에는 초등학교생의 경우 성인역할 부담감이 주요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고 중·고등학생에게는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손자녀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이들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원 서비스의 내용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조손가족손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손가족손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고, 조손가족 손자녀의 발달단계 구분에 따른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손가족손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세 차례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중 손자녀의 성별, 조부모의 배우자 유무, 부모세대와의 접촉 등 질적변수는 가변수화(dummy variable)하여 변환하여 투입하였고, 분석에 앞서 각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을 검토한 결과 각 변수들 간의 VIF 값이 3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체 조사대상 조손가족손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14개의 독립변수를 투입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42.6%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표 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다. 손자녀 개인변인 중 손자녀의 연령($\beta=-.177$)이 적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조손가족 손자녀의 자아존중감 수준($\beta=.346$)이 높아질수록, 성인역할 부담감($\beta=-.180$)이 낮아질수록 학교생활적응 정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부모와 관련된 변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변인은 조사대상 조손가족 손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사회적 변인 중 조손가족 손자녀가 인지한 사회적 낙인감 수준($\beta=-.206$)이 낮을수록 이들의 학교생활적응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족 손자녀의 발달단계를 구분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beta=.529$)과 성인역 부담감($\beta=-.291$)으로 파악되었다. 즉 손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성인역할에 대한 부담감이 낮아질수록 학교생활적응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동기의 경우 사회적 낙인감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청소년기의 경우 성인역 부담감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고, 사회적 낙인감($\beta=-.344$)이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자아존중감($\beta=.325$)의 경우 초등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 이들의 연령($\beta=-.150$)이 낮을수록, 조손가족기간($\beta=.167$)이 길어질수록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조손가족 손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아동의 경우 자아존중감 이외에 성인역할에 대한 부담정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인역 부담감의 영향은 없으나, 이들이 사회로부터 느끼는 사회적 낙인감의 수준이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영

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손가족 손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구성할 때 이와 같은 차이를 발달단계를 구분하여 적절히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5> 손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전체		아동		청소년	
		β	t	β	t	β	t
손자녀 개인 변인	성별 ¹	.018	.311	.019	.167	.061	.881
	연령	-.177	-2.936**	-.017	-.162	-.150	-2.179*
	자아 존중감	.346	4.834***	.529	3.410**	.325	3.761***
	성인역 부담감	-.180	-2.495*	-.291	-2.266*	-.111	-1.239
조부모 변인	연령	.036	.617	.062	.596	-.031	-.405
	배우자 유무 ²	-.073	-1.203	-.042	-.377	-.071	-.938
	양육 스트레스	-.076	-1.298	-.033	-.291	-.044	-.620
	건강상태	-.024	-.419	-.148	-1.370	.020	.281
가족 변인	형제수	.064	1.099	.123	1.081	.065	.915
	소득	.007	.111	-.030	-.272	.072	.870
	조손가족 기간	.059	.914	-.166	-1.627	.167	2.009*
	부모세대 접촉여부 ³	.034	.611	.024	.223	.072	1.041
사회적 변인	사회적 지지	-.034	-.589	-.073	-.721	-.029	-.406
	사회적 낙인감	-.206	-2.562*	.144	.903	-.344	-3.522**
상 수		5.790***		1.927*		4.469***	
F		11.552***		3.522***		9.436***	
adjusted R ²		.426		.309		.498	

1,2,3= 더미변수, *p<.05, **p<.01, ***p<.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조손가족 손자녀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고, 아동·청소년기로 발달단계를 구분하여 그 영향요인의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조손가족 조부모 손자녀 각 201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손자녀는 남아가 52.7%로 약간 더 많았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60.2%였다. 조부모의 경우 조모에 해당되는 경우가 77.6%로 많았고, 평균연령은 약 69세정도이며, 초등졸 이하의 학력이 약 70%,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54.2%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 월평균 소득은 약 67만원 정도이고 조손가족 기간은 5년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2/3정도로 분석되어 여가족부의 조손가족 실태조사(2007)에서 보고한 조손가구의 특성과 유사하였다.

둘째, 조사대상 손자녀의 우울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통수준의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보였다. 또한 아동들은 보통수준의 자아존중감과 중간보다 낮은 성인역 부담감을 보였다.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보통정도로 평가되었으나 신체적 건강상태는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손자녀가 인지하는 사회적 낙인감의 수준이 높은 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조손가족 손자녀의 발달단계를 구분하여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인역 부담감에서만 청소년이 아동에 비해 높은 성인역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손가족 손자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손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성인역 부담감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아지고, 형제수가 적을수록, 조손가족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낙인감이 커질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손자녀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영향요인의 차이를 검증한 결

과, 아동의 경우 성인역 부담감, 조손가족 기간, 사회적 낙인감이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고, 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낙인감만이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손가족 손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이들의 우울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서비스의 내용이 차별화 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조손가족 손자녀의 학교생활적응 영향요인 분석결과 자아존중감, 성인역할 부담감, 사회적 낙인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다. 즉, 이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아지고, 성인역할 부담감과 사회적 낙인감이 줄어들 때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발달단계를 구분한 분석에서는 아동의 경우 자아존중감과 성인역 부담감이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고, 반면 청소년의 경우 성인역 부담감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사회적 낙인감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손가족 손자녀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지원서비스 마련에서도 이들의 발달단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결과로 보여 진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손가족 손자녀의 우울을 경감시키고,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조손가족 손자녀의 자아존중감이 이들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에 주요 영향 요인으로 파악된 점에 근거하여 조손가족 손자녀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확대를 제안하는 바이다. 이미 아동기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자아존중감 향상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다수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조손가족 손자녀의 경우 가족의 결손, 빈곤 등의 문제를 중복하여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긍정적 자아상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일시적 프로그램의 참여만으로는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정확히 사정하고 이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복적인 성공경험을 거둘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부여

하는 것도 필요하고, 조부모, 교사의 긍정적 지지 태도를 위한 개입도 필요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개인상담이나 치료, 가족상담을 실시하는 등,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다각적 개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손가족 손자녀의 성인역 부담감이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에 주요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발달단계를 구분한 분석에서는 아동기의 손자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동과 비교했을 때 성인역 부담감 수준은 청소년의 경우 오히려 높았지만, 실제로 이들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기의 조손가족 손자녀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조부모를 돌보거나 가사를 돕는 등의 성인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부담이 책임감을 강화시키는 등의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기 손자녀가 있는 조손가족에게는 상대적으로 가족의 기능을 보강하는 가사서비스, 간병서비스 등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멘토링 서비스 등을 통해 조손가족의 사회적 관계망을 늘리는 것도 조손가족이 가진 자원을 확대하여 아동의 성인역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조손가족 손자녀가 인식한 사회적 낙인감의 수준이 이들의 우울이나 학교생활적응 모두에서 주요 영향요인으로 파악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조손가족 손자녀의 적응에 개인이나 가족차원의 지원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개선과 같은 환경적 차원의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양적확대 뿐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에 사회적 낙인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함께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특히 조손가족 손자녀가 청소년인 경우 사회적 낙인감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청소년기가 타인의 시선에 대해 더욱 민감해지는 시기이고 사회적 활동의 범위가 아동기에 비해 넓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손가족 청소년에 대한 지

원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자신의 강점을 강화하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인지적 재구조화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낙인감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함께 기울여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결국 사회적 낙인감은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편견을 수정하려는 노력을 통해 감소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가족형태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포함한 사회적 다양성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사회적 인식고취를 위한 캠페인과 인식개선 교육이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조손가족 손자녀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 등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단편적인 지원서비스 보다 조손가족의 상황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례관리를 통해 조손가족 손자녀의 적응에 위험요인을 사전에 감소시키거나 적절한 보호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효과적으로 조손가족 손자녀의 적응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우리 정부는 대리양육가족에 대해 아동 양육비로 1인당 월 70,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육아급여, 의료급여, 아동발달계좌 지원금 등을 제공하고 있다(박정란·서홍란, 2009). 또한 지역사회복지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한적이고 서비스의 연속성이 결여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표집대상자들이 조손가족 중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빈곤저소득 층에 편중되어 있고 대전지역으로 지역적인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전체 조손가족을 대표하고 일반화하는데 표본의 대표성에 한계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는 조손가족 손자녀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에 주요 영향요인으로 사회적 낙인감을 발견해 냈으며, 발달 단계를 구분하여 영향요인의 차이를 찾아냄으로써 조손가족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으나 이들 영향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만 파악하였고, 이들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발달단계에 대한 고려가 횡단연구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차이를 해석하는데 있어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인수, 2001,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부담감과 사회적지지”, 『아동간호학회지』, 6(2), pp. 212-223.
- 김미혜·김혜선, 2004,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4(3), pp. 153-170.
- 김상곤·정연정, 2008,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중단적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인천광역시교육청.
- 김애경, 2002,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원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외현적 문제와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6(3), pp. 31-50.
- 김연희·김선숙, 2008, “사회자본이 아동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36, pp. 103-127.
- 김유미·김명희·정여주, 2008,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접근”, 『사회복지연구』, 38, pp. 123-163.
- 김진숙, 2009, “조손가정 청소년의 생활세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6(9), pp. 223-248.
- 김혜선, 2004, “조손가족 아동의 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4,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손자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8, pp. 85-117.
- _____, 2009, “저소득 조손가족 조모의 손자녀 양육체험이 조모의 삶에 미치는 의미”, 『노인복지연구』, 43, pp. 61-92.
- 김혜성·김혜련·박수경, 2006,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모로부터의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 집단비교를 통하여”, 『한국아동복지학』, 23, pp. 207-232.
- 노충래·김미영·박은미·강현아·신혜령, 2008, “발달단계 및 위탁형

- 태에 따른 가족위탁보호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8, pp. 238-264.
- 류경희, 2003,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41(12), pp. 147-168.
- 박미자·이창식, 2008, “조손가족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 문제행동간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0(1), pp. 93-114.
- 박옥임·김정숙, 2006, “조손가족과 손자녀의 가족생활적응 및 자존감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11(3), pp. 129-139.
- 박정란·서홍란, 2009, 『아동복지론』. 서울: 양서원.
- 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8, “빈곤지위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빈곤 대리변수와 빈곤동반 위험요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 아동복지학』, 26, pp. 113-137.
- 박현선·정익중·구인회, 2006, “빈곤과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간의 관계 : 성인역 부담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2), pp. 303-330.
- 성지혜, 2001, “빈곤한 조부모 자녀세대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복지관 서비스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유미·이윤희, 2009, “조손가족 조부모의 가족스트레스와 가족기능 간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3, pp. 111-134.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은정, 2004, “조부모손자녀세대의 가족기능과 손자녀의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2007, 『조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 오승환, 2001,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 결정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부모이혼·별거가족과 사망가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17, pp. 99-125.
- 옥경희, 2005, “조부모-손자녀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pp. 103-114.
- 유윤희, 1994, “학교적응, 불안, 학업성취간의 관계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윤혜미, 2005, “경제적 곤란과 가족갈등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아동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3), pp. 133-164.
- 이상균·박현선, 2000, “소년소녀가장의 성인역 아동부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16(1), pp. 143-164.
- 이선형·이경림·임춘희, 2009,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4(4), pp. 57-77.
- 이은숙, 2001, “청소년의 소외감·우울과 자살생각에 관한 구조모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인옥·이은옥, 2006, “낙인 개념 분석”, 『류마티스건강학』, 13(1), pp. 53-66.
- 이창식·박미자, 2009, “조손가족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4), pp. 151-172.
- 이현주, 2007, “저소득층 조손가족 아동의 성인아이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경로분석: 수용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3, pp. 7-32.
- 이혜연·이용교·이향란, 2009,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와 복지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수경·이형실, 2007,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9(3), pp. 169-183.
- 전수정, 2003, “양육 및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와 사회적 지지가 이혼가족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연정·김상곤, 2009, “교육복지실천에서 낙인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9, pp. 97-123.
- 정익중·김혜란·홍순혜·박은미·허남순·오정수, 2005,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7(3), pp. 105-131.
- 정효미, 2006, “조손가정 손자녀가 지각하는 가족기능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맹제·김계희, 1993, “주요우울증환자 예비평가에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의 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32(3), pp. 381-399.
- 조홍식·김인숙·김혜란·김혜련·신은주 공저, 2010, 『가족복지학 4판』, 학지사.
- 청소년위원회, 2005,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국제적 동향 및 정책적 과제』.
- 최미영, 2003, “사회적 낙인이 화상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희·박영애·박인진, 2002, “아동의 우울 및 불안경향과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pp. 203-214.
- 최해경, 2006a, “조손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적응유연성”,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3, pp. 37-58.
- _____, 2006b, “조손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실태와 조부모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29(2), pp.

115-142.

- 최혜지, 2006, "저소득층 조손가족의 조부모-손자녀 관계 결정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6(3), pp. 641-655.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21, pp. 407-412.
- Aneshensel, C., and Sucoff, C., 1996, "The neighborhood context of adolescent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37, pp. 943-964.
- Aronen, E. and Soininen, M., 2000, "Childhood depressive symptoms predict psychiatric problems in young adults."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Vol. 45, pp. 465-470.
- Beck, A.,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Y: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hatia, S. and Bhatia, S., 2007, "Childhood and adolescent depression." *American Family Physician*, Vol. 75, pp. 73-80.
- Burton, L.M., 1992, "Black grandparents rearing children of drug-addicted parents; stressors, outcomes and social science needs." *The Gerontologist*, Vol. 32, No. 6, pp. 744-751.
- Corrigan, P., Vett, T., David, L., Yvette, S., and Jeffrey, G.N., 2003, "Perceptions of discrimination among person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Psychiatric Services*, Vol. 54, No. 8, pp. 1105-1110.
- Emery, R. E., 1988, *Marriage, divorce and children's adjustment*. Newbury park, CA:Sage.
- Grych, J. H., and Fincham, F. D., 1992, "Interventions for children of divorce: Toward greater integration of research and action." *Psychological Bulletin*, Vol. 111, No. 3, pp. 434-454.
- Haglund, K., 2000, "Parenting a second time around: An

- ethnography of African-American grandmothers parenting grandchildren grandchildren parental cocaine abuse." *Journal of Family Nursing*, Vol. 6, pp. 120-135.
- Hetherington, E. M., Cox, M., and Cox, R., 1982, "Effects of divorce on parents and children." In M .E. Lamb(Ed.), *Nontraditional familie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J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Jooste, J., Hayslip, B., and Smith, G. C., 2008, "The adjustment of children and grandparent caregivers in grandparent-headed families." In B. Hayslip and P. Kaminski(Eds.). *Parenting the custodial grandchild: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pp.21-39).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Kalter, N., Schaefer, M., Lesowitz, M., Alpern, D., and Pickar, J., 1988, "School-based support groups for children of divorce." In B. Gottlieb(Ed). *Marchaling social support: Formants, processes, and effects*. Newbury Park, CA:Sage.
- Kelley, S.J., Whitley, D., Sipe, T.A., and Yorker, B. C., 2000, "Psychological distress in grandmother kinship care providers: The role of resource, social support and physical health." *Child Abuse and Neglect*, Vol. 24, pp. 311-321.
- Landry-Meyer, L. and Newman, B. M., 2004, "An exploration of the grandparent caregiver role." *Journal of Family Issues*, Vol. 25, pp. 1005-1025.
- Link, B.G., Cullen, F.T., Struenin, E., ShROUT, P.E., and Dohrenwend, B.P., 1989, "A modified labeling approach to mental disorders: An empirical assess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4, pp. 400-423.
- Link, B.G., Struening, E.L, Neese-Todd, S., Asmussen, S., and Phelan, J.C., 2001, "The consequences of stigma for the self

- esteem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Psychiatric Services*, Vol. 52, No. 12, pp. 1621-1626.
- McLeod, J.D., and Shanahan, M.J., 1993, "Poverty, parenting and children's mental heal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8, pp. 351-366.
- Meredith, H., 1992, "Supporting the young carer." *Community Outlook*, Vol. 2, No. 5, pp. 15-18.
- Minkler, M., Roe, K.M., and Price, M., 1992, "The physical and emotional health of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in the crack cocaine epidemic." *The Gerontologist*, Vol. 32, No. 6, pp. 752-761.
- Musil, C.M., and Ahmad, M., 2002, "Health of grandmother: A comparison by caregiver statu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Vol. 14, pp. 96-121.
- Penn, D.L., and Martin, J., 1998, "The Stigma of severe mental illness: some potential solutions for a recalcitrant problem." *Psychiatric Quarterly*, Vol. 69, No. 3, pp. 235-247.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ce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ssell, D.W., and Cutrona, C.E., 1991, "Social support,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the elderly: Test of a process model." *Psychology and Aging*, Vol. 6, pp. 190-201.
- Sampson, R. J., and Laub, J.H., 1996, "Urban poverty and the family context of delinquency: A new look at structure and process in a classic study." *Child Development*, Vol. 65, pp. 523-540.
- Sands, R.G., and Goldberg-Glen, R.S., 2000, "Factors associated with stress among grandparents raising their grandchildren." *Family Relations*, Vol. 49, No. 1, pp. 97-105.

Whitley, D.M., Kelley, S.J. and Sipe, T.A., 2001,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Are they at increased risk of health problems?" *Health and Social Work*, Vol. 26, No. 2, pp.105-114.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in Grandchildren from Grandparent-Grandchild Families: Developmental Stages

Lee, Yon-hwa
(Mokwo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actors that influence dep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in grandchildren from grandparent-grandchild families and examines group differences according to developmental stages by analyzing a sample of 201 grandparent-grandchild pairs. The results obtained using SPSS/WIN 14.0 indicate that self-esteem, adult-role burdens, the perceived social stigma, the duration of the grandparent-grandchild family arrangement, and the number of siblings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depression in grandchildren. Further, self-esteem, adult-role burdens, and the perceived social stigma are significant predictors of school adjustment. Finally, the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in grandchildren varied according to their developmental stage.

The result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practitioners and policy makers attempting to provide social support for grandchildren from grandparent-grandchild families.

Keywords :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y, Depression, School adjustment, Developmental stages, Social stigma